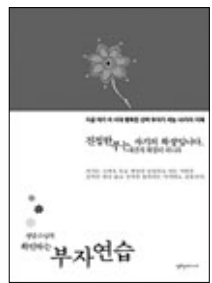


‘안분지족’ 삶 누릴 줄 알아야 진정한 부자



부자연습
성담 스님 지음
셀프컬처리서치 펴냄
1만4천원

부자되는 일은 세상을 이롭게 할 우리들의 아름다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만을 꿈꾼다. 그러나 자기는 그대로 두고 재산만 늘릴려고 하는 사람은 실력은 관심 없고 성적만 올리려는 아이와도 같다.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기 어렵지만 일어나더라도 ‘진짜’ 일 수는 없다.

부자되는 일도 마찬가지로. 돈만 많아진다고 진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만 많은 것을 부자로 알면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돈 지키는 가난뱅이가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자되는 일도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삶에서 막연하게 부자를 꿈꾼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종종 꿈에서 그친다. 이 책은 진정한 부자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과 아름다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지혜를 선물한다.

저자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막연한 바람에 그칠 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부자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상도 못 하는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혹여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부자가 되려면 공부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다.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많은 사람이 부자인 줄 알면 평생 한 판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부족한 인생이 되기 마련이다. 진짜 부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부자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만족과 안심이다. 보통 부자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진짜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영웅한 상상에 불과하다.

돈이 많아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백 억원쯤 통장에 있으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천 억원쯤이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때까지 만족하고 안심하기 어렵다. 게다가 많이 가질수록 가진 것이 사라질까 봐 불안한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도 안심할 수도 없다. 사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행복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진정한 만족과 안심을 얻을 수 있을까?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이미 자신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고, 필요하다면 더 취할 수도 있으며, 필요 없다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때야 가능하다. 그리고 진정한 안심을 얻으려면 이 세상은 잘못된 것도 잘못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때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진짜 부자는 존재했다. 그들은 돈 한 톨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랬음에도 그들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 할 돈을 벌기도 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세상을 위해 써버리기도 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도, 이런 것도 인간의 몸통이 가진 한계를 쉽게 뛰어넘는다.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돈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만 그럼에도 돈만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마치 공부는 관심 없고 성적만 올리려는 아이와도 같다. 부자는 자기가 확장되는 것이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부자되려면 연습 필요 돈 쫓으면 돈 지키는 가난뱅이로 전락 진짜 부자 핵심 특징은 ‘만족과 안심’

그러므로 먼저 진정한 자기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넓혀서 모든 것이 자기이므로 가지지 못한 것이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없으며, 잘못된 것도, 잘못될 것도 없는 줄 아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과 안심을 얻는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말의 의미조차 알지 못한다. 그것이 어렵고 대단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연습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진정한 부자와 같이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나누는 것이 부자라고 이 책에서 저자는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알려준다.

소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도나 다키야 할 스님이 세속적인 것에 대해 말할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한다. 그렇다면 진리는 깨닫고자 다리 꼬고 앉아 수많은 날을 소일하는 선방에만 있는 것일까? 그런 곳에만 있는 진리라면 삶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죽어버릴 진리에 불과하다. 저자는 진리는 삶 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다.

길쭉의 들국화에 진리가 있으며, 저자거리 행상의 어깨에 진리가 있으며, 또, 성공에도 진리가, 부자 되는 길에도 진리가 있다. 삶 속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없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부자처럼 보이는 이들은 많다. 겨우 수억을 벌고 자신은 물론, 천금보다 귀한 자녀와 배우자도 돌보지 못한 가짜 부자들도 많고, 자기가 살 세상을 망쳐놓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바보 부자들도 수두룩하다. 돈을 많이 벌고도 필요한 데 쓰지도 못하는 돈 지키는 가난뱅이도 엄청나고, 벌어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영원한 가난뱅이도 넘쳐난다.

이러한 시대에 이 책은 분명히 진짜 부자를 말한다. 그리고 진짜를 구하면 언제나 깨달음을 얻는다. 또, 제대로 보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는다. 이 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어 영원히 행복하길 간절히 원하는 게 저자의 큰 바람이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삶에서 시련이 생기면 명상이 진정 필요한 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가지 명상

잭 콘필드 지음 | 정준영 옮김 | 불광 펴냄
1만3천원



인생이 고해(苦海)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어려움에는 종류도 다양각색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주변 사람과 크게 다투거나, 갑자기 큰 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마주했을 때 가장 힘든 건 이리저리 외적인 변화보다 그 변화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상태인 경우가 많다.

슬픔과 불안, 분노, 두려움, 외로움, 좌절로 마음은 더욱 괴롭다.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용감하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다. 잭 콘필드 박사는 아잔 차 스님의 말씀을 빌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살아오면서 더 가치 있었던 때,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웠던 때, 더욱 지혜로워졌던 때, 인내와 이해, 침착함, 관용을 배웠던 때는 힘겨운 시기였을까, 아니면 잘 나가던 시기였을까?” 바로 그렇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갈등과 투쟁에서 온다. 오 늘의 나는 내가 그동안 극복해 온 모든 시련의 결과물이며, 이 시련들이 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련의 순간에 절망 말고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를 내어 명상을 하라고 조언한다. 명상은 시련을 멀리 떨어져 보낼 내면의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금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들이 할 일은 이게 전부라는 것이다. 자리에 앉아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것에서 아무리 도망지려고 해도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따라온다고 저자는 말한다. 도망치지 말고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곧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평온과 평화 △최선의 의지는 시련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랜 명상의 경험을 녹여낸 것이다.

이 8가지 명상법은 긍정적인 사고를 무조건 강조하거나, 즉각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단순한 자기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우리 내면의 지혜에 다가가기 위한 ‘영적인 수행’으로써 매우 강력한 도구이다. 이 책에 담긴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 서구적으로 명상 수행을 하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삶의 여정을 안내하는 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김주일 기자

잭 콘필드 박사는 작가이자 심리학자이며, 불교의 명상수행법을 서양에 소개한 중요한 저명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67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아시아 연구를 공부한 후, 태국,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불교 승려로 수행하였다. 1975년 그는 매사추세츠 바르에서 통찰 명상 모임(Insight Meditation Society)을 만들었고, 그 후 캘리포니아 우드에이커의 명상 명상 센터를 공동 설립했다. 그의 저서로는 《지혜로운 마음》(The Wise Heart) 《부다의 가르침》(Teaching of the Buddha) 등이 있다.

현대적 사고에 맞게 풀이한 법화경

만화로 보는 법화경과 새로운 해설
글 방경일 | 그림 김정열 | 솔바람 펴냄 | 1만3천원



《법화경》은 일생에 한 번은 꼭 봐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전이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게다가 약 2천년 전에 등장한 《법화경》의 구성과 전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독자들을 《법화경》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책 《만화로 보는 법화경과 새로운 해설》이다.

한 품당 네 페이지로 구성된 만화부분은 누구든지 쉽게 《법화경》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부처의 세계를 보여 주면서 그들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 경전이자 순한 믿음이나 한 구절의 전달만으로도 커다란 공

덕과 보상을 약속하는 경전이 《법화경》이다. 그러나 《법화경》은 분량이 만만치 않다. 신심이 돈독한 불자도 《법화경》 전체를 읽기가 쉽지 않다. 젊은 이들은 더 그러하다.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해 법화경 28품 전체를 만화로 풀이했다.

만화부분 뒤쪽에 추가한 해설부분은 만화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법화경》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이 해설은 현대인의 사고 수준에 맞게 물리학, 천문학, 심리학, 해석학 등에 비해 본 풀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법화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합리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해설에 친밀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한 다.

이 책은 만화와 해설이라는 이중의 구성으로 돼 있다. 각각 나름대로의 완결성을 갖고 있으므로 만화부분과 해설부분을 따로 볼 수 있다. 물론 만화와 해설을 묶어서 각 품별로 보는 것이 기본이다. 김주일 기자

주련, 짧은 글 속에 담긴 진리의 세계

마음을 쉬는 절집
글 사진 한민 | 청년정신 펴냄 | 1만4천원



많은 사람들이 절집을 찾는다. 불자는 물론이요 그렇지 않은 이들도 관광 삼아 찾는 곳이 절집이다. 하지만 기억에 남을 만큼 특별한 감동을 받는 절집 여행도 드물다. 그저 경내를 한 바퀴 둘러보고는 끝이다. “아는 것만큼 느낀다”고 했던 유희준 교수의 말처럼 산 넘고 물 건너 명산대찰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심도 경쟁력이다.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채워지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진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 여행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절집을 찾

아보자. 그리고 절집 기둥에 달려 있는 주련을 읽어보자. 종교와 상관없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선지식들이 체득한 깨달음의 경지가 시의 형태로 적혀 있는 주련을 읽다보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주련은 한시 형태로 쓰인 부처님의 말씀이나 큰스님들의 선사로 곱씹어 읽을수록 우리에게 무릎 치게 깨달음과 살아가며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힘을 주곤 한다. 절집에 갈 때마다 늘 거기에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진리의 일구 일구들이다.

주련은 가훈이나 좌우명처럼 수행자들로 하여금 늘 곁에 두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함이지만 한자, 그것도 행서나 초서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뜻을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이럴 때 ‘주련에 담긴 뜻과 유래를 알 수 있는 책 한 권’이 손에 들려 있다면 걱정이 없다. 여유롭고 자신에 찬 표정으로 내 아이에게, 친구에게 주련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붓다북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